

4

4월의 양돈관리 포인트

포유자돈의 지체손상 또는 관절염

언제가 전문가 상담란에 포유자돈의 다리에 생기는 몇 가지 염증문제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사람으로 치면 무릎부위에 해당하는 곳에 관절염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발바닥이나 발톱 사이의 염증, 발톱이나 뒷발톱(accessory digits)의 심각한 손상 등이 전부 여기에 해당하는데 온라인상에서 문의를 해 온 사람은 특히 관절과 발바닥의 염증 때문에 고민이 많아 보였다.

자~ 이런 경우에 관리자는 어떻게 질병에 대응을 하면 좋을까? 필자가 권하고 싶은 한 가지는 돼지보다 돼지의 주변을 살펴보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작은 것보다 보다 큰 요인들을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다. 오래 전에 어떤 소규모 농장을 방문했을 때 농장주가 바로 위와 같은 상황을 묻은 적이 있었다. 자돈에서 관절염이 빈발하는데 실험실에 갖다 주었더니 포도상구균이 원인균이라 하고 잘 듣는 약으로 아목사실린을 권해서 그 주사를 줄기차게 주사 놓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증상이 계속 나와서 고민이라고... 바로 이런 경우가 돼지만 보고 주변을 살피지 않는 경우라는 것이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는 말을 이때 써야하나?

대부분 발바닥이나 발톱에 염증이 생기는 문제는 그 분만사의 돈방바닥과 깊은 연관이 있다. 콘크리트바닥이라면 너무 거칠다든가 슬랫바닥이라면 특히 철망재질로 된 경우 철망의 구멍이 너무 큰 경우나 구멍 모양이 자돈 발바닥에 상처를 줄 수 있게 생겼을 경우, 또는 철망 자체가 군데군데 파손이 되었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분만사나 이유자돈사에 사용되는 철망 바닥의 경우, 구멍 크기의 기준은 폭 8~11mm 정도가 적당하고(Garth Pig Stockmanship Standards 참조) 슬랫의 구멍 주변은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만약 발병 요인이 여기에 있었다면 바닥을 고치는 것만으로 자돈의 지체손상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견상 별다른 상처가 보이지 않는데도 자돈의 관절에 염증이 자주 생긴다면 분만사의 기본적인 사양관리 기법이나 일반 위생면에서의 문제점 유무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특히 관절염의 원인균이 연쇄상구균의 일종으로 밝혀진다면 더욱 더 분만사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외과적 처치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보다 위생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견치기는 어느 농장이나 몇 개씩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사용할 때 1



황 윤 재 상무
금오BPC

복 단위로 쓰고 물로 세척하고 소독해서 다른 복에 사용하지는 것이고 단미기, 이각기, 거세용 칼날, 백신이나 철분 주사기 또한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연쇄상구균의 차단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 다른 상당수의 병원체들의 차단을 위해서도 위와 같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손해 볼 것은 하나도 없다.

연쇄상구균은 모든의 호흡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와 포유자돈에게로 감염된다. 소위 전형적인 수직감염의 형태를 취하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분만사에서 모든 사료에 적당한 항생제를 사료첨가해 주는 것이다. 대개는 2~3주 정도를 권하고 약제 종류는 감수성 검사를 해보고 가장 효과적인 약을 고르면 되지만 대개 연쇄상구균을 다스리려면 아목사실린이나 설파+트리메토프림, 암피실린, 세파계열의 약제 등이 좋겠다.

물론 관절염이 있는 자돈들도 개별적으로 치료해 주면 좋겠는데 물론 상기 약제의 주사제를 사용하고 부신피질 호르몬제의 사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국소요법으로 일부농장에서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되고 있는 봉침을 바로 여기에 적용하면 의외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옥도 등의 분무도 적당하게 활용해보자. **양돈**

토 · 막 · 상 · 식

●●● 알아보자! 돼지에 대한 편견!!

◆ 돼지는 지저분하다?

돼지는 다른 어떤 동물보다 깨끗한 동물 중 하나다. 그러나 땀샘이 거의 없어서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 없는 돼지가 진흙탕을 딛고며 체온을 식히려려고 하는 모습이나, 대량으로 돼지를 사육하면서 불결한 위생상태에서 길러지는 돼지를 보면서 '돼지는 불결하다'는 편견이 생겨났다. 돼지는 불결한 곳을 좋아하지 않는다. 넓은 장소가 제공되고 배설장소를 따로 만들어 주면 돼지는 배설물이 있는 곳의 냄새를 맡고 그 장소에서만 배설해 누울 곳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한다.



◆ 돼지는 '돼지처럼' 많이 먹는다?

돼지는 자신에게 정해진 양 이외에는 더이상 과식하지 않는 동물이다. 돼지는 100% 먹으면 물러선다. 오히려 '식탐'은 인간 쪽이 훨씬 강하다. 야생의 상태에서 먹이의 수급이 일정치 않은 경우에 장기간 영양공급을 받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영양분을 미리 비축해두는 습성이 있는데, 이는 비단 돼지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또 재미있는 돼지의 습성은 새끼 돼지가 자기에게 할당된 어미의 젖 말고는 넘보지 않는다는 것. 새끼 돼지는 어미의 여러 개의 젖꼭지 중에서 자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 형제들의 것을 훔쳐먹지 않는다. 또 어미는 새끼들 모두가 젖을 물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젖을 흘려내 보낸다.